## 2011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19

로마서에서

(3)

## 해방자 그리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

성경: 롬 8:2, 31-39

## I.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영의 법이신 해방자로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다—롬 8:2.

- A. 로마서 8 장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리면 우리는 로마서 12 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안내된다. 이 법은 우리가 몸 안에서 몸을 위해 살 때 우리 속에서 운행한다—8:2, 28-29, 12:1-2, 11, 빌 1:19.
- B. 각 생명에는 율이 있고, 심지어 생명 자체가 하나의 율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높은 생명이고, 이 생명의 법은 가장 높은 법이다—비교 요 1:4-5, 12:24, 14:6 상, 10:10 하, 고전 15:45 하.
- C. 삼일 하나님께서는 육체 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을 통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의 영의 법이 되시어 우리의 영 안에 '과학적인' 법, '자동적인 원칙'으로 설치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장 큰 발견, 심지어 가장 큰 회복 중하나이다—록 8:2-3, 11, 34, 16.
- D. 생명의 영의 법은 신성한 생명의 자연스러운 능력이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자연스런 특성이며, 본연의 자동적인 기능이다—12:2, 빌 2:13, 겔 36:26-27, 잠 30:18-19, 사 40:28-31, 히 12:2 상, 빌 4:13, 골 1:28-29.
- E.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안에 머무르며 주님과의 접촉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영의 법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작용한다.
  - 1.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몸부림치고 분투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갈 2:20 상, 롬 7:15-20.
    - a. 죄가 하나의 법이라는 것과 우리가 결코 이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7 장에 빠져서 결코 로마서 8 장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 b. 바울은 원하고 또 원했지만 그 결과는 반복된 실패뿐이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결심하는 것이다—7:18.
    - c. 죄가 우리 안에서 잠복해 있을 때에는 다만 죄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죄가 우리 안에서 깨어나' 악'이 된다.—"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21 절.
    - d. 원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영에 따라 행해야 한다—8:6, 4, 빌 2:13.
  - 2. 우리는 기도에 의해, 그리고 의지하는 영을 가짐으로, 내주하시는, 설치되신, 자동적이신, 내적으로 운행하신 하나님과 동역하여, 생명의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고, 일의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살전 5:17, 엡 6:17-18.
  - 3.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의 운행을 위해 신성한 생명의 흐름, 생명의 교통 안에 머물도록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을 주의해야 한다—롬 8:6, 16, 요일 1:2-3, 6-7.
- F.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생활과 봉사의 열쇠 전체는 우리 속에서 운행하는 생명의 영의 법이다.
  - 1. 우리가 그분의 단체적인 형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되게 함— 록 8:2, 29.

- 2. 우리를 모든 종류의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조성함—엡 4:11-12, 16.
- G.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법의 '스위치를 켬'으로 생명의 영의 법이신 내적으로 운행하시는 삼일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
  - 1.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고, 영 안에 살아야 한다—롬 8:4, 비교 시 23:3.
    - a.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비결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다—빌 4:12-13, 23,
    - b. 그리스도 안에 사는 실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사는 것이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이든(2:29, 8:5-6, 9),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10, 16 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하든(1:9, 7:6, 8:4, 13, 12:11)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1) 우리의 영 안에 살려면 우리는 시간을 들여 주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빛에 잠기고,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적셔지고, 그분의 뛰어남을 발산해야 한다—고후 3:16, 18, 시 27:4, 비교 마 6:6, 14:23, 출 33:11 상, 34:4, 각주 2.
      - (2) 우리의 영 안에 살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살전 5:17, 비교 요 20:22, 애 3:55-56, 롬 10:12-13.
      - (3) 우리의 영 안에 살려면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머물러 신성한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요일 1:2-3, 6-7.
  - 2. 우리는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할—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수 있다—롬 8:5-6.
    - a. 우리는 그 영을 슬프시게 하지 않고 그 영을 끄지 않도록 우리의 영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우리의 영을 주의해야 한다—말 2:15-16, 엡 4:30, 살전 5:19.
    - b.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과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둠으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수 있다—요 6:63, 사 55:8-11.
    - c.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또한 주님과 하나 되어 모든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관심하는 것이다—빌 2:21, 1:8.
  - 3. 우리는 그 영으로써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롬 8:13, 슥 4:6, 갈 5:16.
    - a. 우리는 반드시 그 영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 거주하시고 거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롬 8:9, 11.
    - b.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아래 사탄을 짓밟히게 하는 곳인 교회 생활 안에 머물러야 한다—16:20, 12:1-2, 11.
  - 4.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8:14.
    - a.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내주하시는 복합된 영의 움직임과 일하심인 내적 기름 바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요일 2:20, 27.
    - b.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안에 있는 포로로서 이끌리며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안식을 주의하는 것이다—고후 2:12-14, 7:5-6.
  - 5. 우리는 아들의 자격의 영 안에서 아버지께 외칠 수 있다—롬 8:15, 갈 4:6.
    - a.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때(롬 8:15),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신다(16 절).
    - b.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의 달콤함을 표현한다—비교 마 18:3.
  - 6.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영안에서 탄식할 수 있다—롬 8:23, 26-27.
    - a. 우리의 탄식 안에서 그 영께서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
    - b. 중보 기도하시는 영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28-29 절.
- II.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다—37절.

- A.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고 제한되고 자극받고 끌리고 몰리고 밀려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31-39 절.
  - 1.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담긴 모든 풍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전 2:9-10. 딤후 3:2-4.
  - 2.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야 한다—고후 5:14.
- B.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롬 8:31, 렘 31:31-34, 히 8:8-10.
  - 1.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녕히 나의 마음과 혼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렘 32:40-41.
  - 2. 이 영영한 언약은 새 언약이다. 이 언약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심으실 것이며,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여 모든 방면들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사고 얻는다—40-44 절, 빌 3:8-14.
- C.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인 우리의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롬 8:28, 32, 고전 3:21-22.
- D.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롬 8:34.
  - 1. 34 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지만, 10 절에서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딤후 4:22, 비교 요 1:51, 창 28:11-22.
  - 2. 로마서 8 장 34 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지만, 26 절에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그 영이시다.
    - a. 이들은 두 중보 기도자가 아니라 한 분 주 영이시다—고후 3:18.
    - b. 그분은 우리를 위해 두 끝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한 끝에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서 아마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다른 끝에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주 그리스도로서 아마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러한 중보기도는 분명 주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한 기도일 것이다.
- E. 환난, 곤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을 포함한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롬 8:35.
- F.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넉넉히 이긴다-37절.
  - 1.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사실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우리를 누르거나 패배시킬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긴다.
  - 2.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아무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38-39 절, 5:5, 렘 31:3.
  - 3.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위해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한다—롬 8:35, 호 11:4.
  - 4. 이러한 놀라운 일들에 성이 난 하나님의 원수는 모든 종류의 재난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므로 이러한 공격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롬 8:35-36, 28.
  - 5.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재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긴다-37절.